

2 뉴스

전공탐색세미나 자율 수강 가능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신입생 필수 강좌 전공탐색 및 기업가정신세미나(전탐세)가 오는 2024학년부터 현행과 다르게 자율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바뀐다.

전탐세는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진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제캠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일괄 수강 신청과 1학점인 전탐세를 듣기 위해 2학점 수업을 강제로 이수하거나 3학점 수업을 포기하는 등 전반적인 학업 계획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미래인재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일괄 수강 대신 학생이 자율로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최대 수강 가능 학점과 관계없이 전

탐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2학기에 수강할 수 있었던 전탐세를 1학기에 수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미래인재센터 최혜림 계장은 “1학기에 전탐세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전공 관련 이해가 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입생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변화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인(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씨는 “그간 전탐세로 여러 불편이 있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개편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전탐세를 수강했지만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후마 ‘배분이수교과’ 12→9학점으로 축소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양교육과정 중 ‘배분이수교과’ 이수 요건이 기존보다 3학점 줄었다.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5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필수 선택해 9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이수 요건은 배분이수교과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필수 선택해 12학점을 이수하는 것이었다. 후마 행정실은 “졸업을 위해 필요한 총 학점이 줄어들

에 따라 학생들의 교양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교양 교과는 영역별로 필수교과 17학점, 배분이수교과 9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3학점 이상 총 2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최대 56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2019~2023학년도 입학생은 교양 과정 개편으로 인한 경과 조치에 따라 배분이수교과를 영역 구분 없이 12학점 이수해야 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 역시 마찬가지다.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후마 배분이수 이수 요건이 9학점으로 변경된다.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12학점 이수하면 된다. (사진=대학주보DB)

모집단계 필수요건(수도권대) :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센티브 지급

	유형1	유형1 + 유형2
2025학년도	5% 이상 (단, 26학년도 10% 이상 모집 계획 제출 시 인정)	20% 이상
2026학년도	10% 이상	25% 이상

유형1 (우리학교 자율전공학과와 유사)	유형2 (우리학교 광역모집제도와 유사)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제외) 자율 선택 모집구조 ① 자유전공, 단과대, 학부 ▶대학 내 모든 전공 ② 무전공 통합모집 ▶대학 내 모든 전공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 모집구조 ①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타 ▶해당 계열 내 학과 전공 선택 ② 첨단융합대학(단과대) 모집 ▶단과대 내 학과 전공 선택

출처: 교육부

교육부, 대학가 무전공 입학 추진 2025학년도 정원 20% 이상 권고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교육부가 2년 뒤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정원의 20%, 2026학년도에는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생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전공 입학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 보건의료 및 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1, 계열 단위 모집 후 해당 계열의 범위 안에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2가 있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의 입시 제도는 고등학교 때 점수에 맞춰 학과와 진로를 정하도록 하는데, 대학에 가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유형1의 모집 방식만 택하거나 유형1의 적용과 함께 유형2를 적용해야 한다. 후자의 방식은 두 유형을 합한 비율이 2025학년도에는 20%(이 중 유형1 5% 이상), 2026학년도에는 25%(이 중 유형1 10% 이상)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5학년도의 경우는 유형1과 유형2 비율의 합이 20%를 넘어

야 한다. 여기서 유형1로만 20%를 채울 수 있지만 유형2로만 20%를 채울 수는 없다.

교육부의 확정된 사업계획이 발표되면 우리학교에서도 이에 발맞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팀장은 이 같은 개편안에 “추후 확정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학교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대학 문병순(중국어학) 학장도 이에 대해 “이번 겨울 방학에 대학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 논의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개편안 내용과 광역모집제도의 취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2023학년도 제8차 교무위원회를 통해 교무위원에도 전달된 바 있다.

다만 김 팀장은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학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 대학은 학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닌, 무전공 입학 후 전공을 결정한다”며 한국의 ‘학과 중심’ 대학 문화를 짚었다. 학과라는 개념이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의 소속감을 하나의 대학이 아닌 학과로 국한해 타 학문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브라운대와 메사추세츠 공대는 현재 무전공 입학 및 100% 자율전공 선택의 절차를 갖고 있다. 특정 전공에 신입생 절반이 쏠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최고 대학교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선택받

지 못한 학과의 교수들은 다시 선택받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대학도 이 정도의 혁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문 소멸 우려에 김 팀장은 “기초학문의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종합대학으로서의 응용 학문 발전이 있다”며 “두 분야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전공 입학 제도가 확대돼 개별 학과가 폐지된다면, 기존에 특정 학과에 소속됐던 교수는 학문을 넘나들며 융합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무전공 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 탐색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한 학과만 고집할 수 없다”며 “기초학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현재 정시 모집 전형을 통해 ▲사회과학광역 ▲ICT광역 ▲생명과학광역에서 총 110명을 선발 중에 있다. 무전공 입학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우리학교의 광역단위 모집에 대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영구(컴퓨터공학) 학장은 일부 학과로의 쏠림 우려에 대해 “쏠림 현상은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전공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잠재적인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단점을 크게 상회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